

책과 문화가 있는 복합지식문화 심터

교보문고 광주상무센터 오픈

타임스퀘어 3층 320평 규모
6만여종 8만여권 서적 구비
키즈파크·북카페 등 갖춰
개관 기념 교사 저자 북토크



지난 26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 문을 연 교보문고 광주상무센터는 책을 매개로 하는 지식문화공간이다.

광주 상무지구에 책을 매개로 하는 복합 지식문화공간이 탄생해 눈길을 끈다. 교보문고는 지난 26일 상무지구 타임스퀘어 3층에 광주상무센터를 개점했다고 밝혔다.

교보문고 광주상무센터는 광주전남 지역 유일한 교보문고 매장으로, 1058㎡(320평) 규모로 다양한 지식문화 콘텐츠와 편안한 독서 공간이 구비돼 있다. 문화를 사랑하는 지역민이면 누구나 이곳을 찾아 쉬며, 놀며, 머물며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지식문화공간에 초점을 맞췄다.

개점 2일째인 지난 주말(27일)에 찾은 상무센터는 활기가 돌았다. 방학을 맞아 어린이들과 함께 책을 사러 온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곳곳에 눈에 띄었다. 추운 날씨에도 매장을 찾은 이들은 책을 구입하거나 학용품을 구매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이곳에는 약 6만여 종 8만여 권의 다양

한 도서가 구비돼 있을 뿐 아니라 문구, 음반, 기프트 등 고객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다양한 상품도 갖춰져 있다. 또한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카페'와 독서 테이블, 독서 바 등 다양한 형태의 편의 공간을 마련해 책도 읽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광주상무센터의 특징은 지역밀착형 문화공간이라는 점이다. 지식문화도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지구에 걸맞게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매장 관계자에 따르면 서가의 간격을 넓히고 높이를 낮추어 탁 트인 개방감을 느끼도록 했다. 곳곳에 식물을 놓아 자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광주센터 관계자는 "매장이 3층에 있다 보니 조망권이 좋아 창가에 앉아 도심을 감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이곳에 들러 '마음의 양식'도 채우고 '몸의 양식'

도 채워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아이들을 위한 독서공간 '키즈파크'가 설치돼 있는 것도 이색적이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앉아 독서하며 책과 친숙해 지도록 공간을 마련했다.

성인을 위한 소설, 시, 에세이 등이 구비된 '베스트셀러' 공간도 있다. 한 주 동안 사랑 받은 도서들을 한 곳에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도 손쉽게 인기 도서를 만나 볼 수 있다. 이밖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전문서적 코너도 마련돼 있다.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캐리커처를 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다. 35명의 작가를 놓아 자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교보문고 광주상무센터는 오픈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2월 3일과 10일 오후 2시에는 지역 교사인 저자를 초청해 '학교생활 이야기'라는 주제로 북

토크와 북토크를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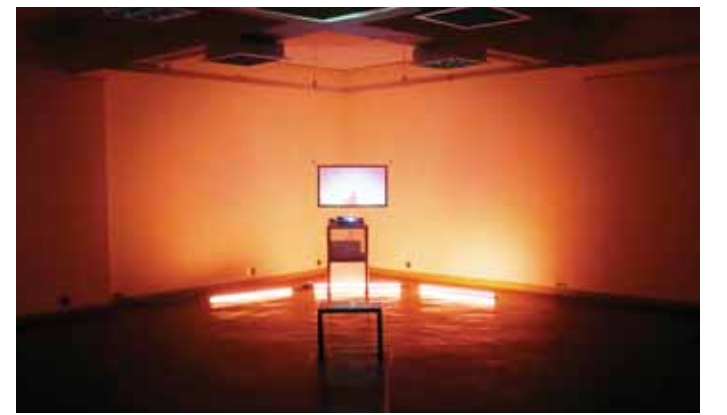
2월 3일에는 임성열, 김복현 교사가 '교육의 중심에는 반드시 학생이 있어야 한다'를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임성열 교사는 '광주동 혁신학교 4년의 행복한 성장'을 이야기하고, 김복현 교사는 '오고 싶은 학교, 더 머무르고 싶은 학교'에 대해 발표를 할 예정이다.

2월 10일에는 강현, 안수경 교사가 '수업지수를 높이는 수업혁신 이야기'를 주제로 독서들과 만난다. 강현 교사는 '교사가 추천해주는 30가지 책 이야기'를, 안수경 교사는 '수업지수를 높이는 수업디자인 이야기'를 매개로 토크를 들려준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매장 방문 접수를 통해 각각 선착순 10명씩 모집한다.

한편 교보문고 광주상무센터의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문의 062-373-3501.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박승혁 작가 미디어 아트 개인전



31일까지 무등갤러리

인디음악 뮤직비디오, 사운드 디자인 등을 영상과 플라보한 작품들을 제작해 온 박승혁 작가가 광주에서 미디어 아트 개인전을 갖는다.

무등갤러리가 신년 후원 전시로 마련한 이번 전시는 박승혁 갤러리 리제 학예연구실장이 외부 기획자로 참여했다.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의 주제는 'Perception ; 自覺'으로 '우주 소년단의 'Eluphant', '더 콰이엇'의 'Your world', '언유주얼'의 'UNSink-ABLE ON MY COCKPIT' 등 3편의 뮤직비디오와 함께 미디어 디자인 영상 설치물 'Perception'을 만날 수 있다.

사운드와 오디오가 강조된 이번 작품들은 특히 다양한 공간 디자인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체험을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지난 15일 박 작가 등이 참여한 오프닝 퍼포먼스가 열린 데 이어 오는 31일 오후 2시에는 클로징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비올라 연주와 천문학 강연이 어우러진 '아티스트에게 드리는 천문우주 이야기'다. 전 광주시립교향악단원 임경애씨가 '울게 하소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등을 들려주며 강연은 박종철 국제환경전문대학교학관장이 맡는다.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영상 제작에도 참여한 박 작가는 서울월드디제이 페스티벌, 문화존, 로로스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VJ이며 박재범 등의 뮤직 비디오, 공연 영상을 기획·연출한 디자이너이자 미디어 작업자다.

박 작가는 조선대 미술대를 거쳐 한국예술종합학교 멀티미디어영상과 전문사 과정을 졸업(예정)했다. 문의 062-236-252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음악협회 광주시지회 신인음악회

2월 1일 금호아트홀

(사)한국음악협회 광주시지회는 오는 2월 1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2018 신인음악회'를 연다.

이번 음악회의 출연자는 전남대·조선대·광신대·광주대·남부대·호남신학대 등 6개 대학 음악과의 졸업예정자 중 전공 실기가 우수한 학생들로 꾸려졌다.

첫 무대는 소프라노 박빛나가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중 '꿈 속에 살고 싶어라'를 노래한다. 이어 피아니스트 김시은이 바흐의 '부조니 사르나 D단조'를, 플루티스트 황수민이 오페라 '물레방앗간의 처녀' 중 '허무한 마음' 아리아를 선보일 예정이다.

다음무대는 테너 김태연이 베르디 오페라 '가면무도회' 중 '나 영원히 그대를 잃는다 해도'를 선사하며 이어 소프라노 김주연이 오페라 '파우스트' 중 '보석의 노래'를 들려준다.

트럼펫리스트 김은영은 네루다의 '트럼펫 협주곡 E Flat 장조'를, 피아니스트 선수인은 드뷔시 '피아노를 위하여



김태연 박빛나

중 전주곡'을, 피아니스트 김지현은 리스트의 '헝가리 광시곡 2번 C#단조'를 연주한다.

이밖에 첼리스트 서지수가 베토벤 '소나타 제4번'을, 플루티스트 문윤정이 타타쉬빌리의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를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마지막 무대는 피아니스트 박솔비의 쇼팽 '스케르초 4번 E장조'로 장식된다.

김유정 (사)한국음악협회 광주광역시지회 회장은 "출연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무대경험과 큰 경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음악애호가들에게도 우수 신인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석 초대. 문의 010-2625-3144. /전은혜기자 ej6621@

대한민국 한복모델 선발 광주·전남 본선대회

4월 14일 빛고을시민문화관

'2018 대한민국 한복모델 선발대회'가 오는 4월14일 광주·전남지역 본선대회(빛고을시민문화관)를 시작으로 전국 7개 권역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최고의 한복모델을 선발하고 한복의 활성화 및 세계화를 위해 마련됐다.

'2018 대한민국 한복모델 선발대회'는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한복모델 선발대회로 1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에서 한복과 잘 어울리는 모델을 선발하는 대회로써 한복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

나 지원할 수 있다.

각 권역에서 선발된 결선진출자들은 5월 26일 서울에서 최종 결선 경합을 벌일 예정이며, 수상자들에게는 우수 상금을 비롯한 풍성한 부상과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 선발되는 한복모델들은 일년 동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복모델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며, 특히 약 50개국 주한외교사절단과 함께 국내 최고 한복 디자이너들의 한복을 입고 한복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2018 세계의상페스티벌' 참가, 각국과의 수교기념 패션쇼 참가 등 국제무대에 서게 된다. /전은혜기자 ej6621@



지난해 열린 '2017 대한민국 한복모델 선발대회'의 모습.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새해에도 변함없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한정식 아리랑하우스는 2월 14, 15, 16일 휴무입니다. 17일(토) 정상영업합니다.

광주맛집 since 1981 36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1등 맛집 연속 선정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금수장호텔 GEUMSUJANG HOTEL